

블락비, 한 방에 무너졌다 한 방에 일어섰다

막말 파문·계약 분쟁 딛고 재기 성공

미니앨범 ‘베리 굿’ 발표 열흘만에 1위 음반 판매 불타...CF 모델 요청도 쇄도 일본·동남아·남미 등 해외에서도 인기 반성과 노력으로 기다려준 팬들에 보답

남성그룹 블락비가 단 한 번의 구설수로 곤두박질쳤다 단박에 다시 일어서는 극적인 모습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블락비는 2일 미니앨범 ‘베리 굿’을 발표하고 열흘 만인 13일 SBS ‘인기가요’에서 1위를 차지했다. ‘베리 굿’은 발매 일주일 만에 6만장(소속사 집계)이 판매됐고, 현재 판매량 10만 장을 눈앞에 뒀다. 건강음료, 캐주얼 의류, 치킨 등 CF모델 요청도 밀려 들고 있다.

해외에서도 뜨겁다. 2011년 4월 데뷔 이후 9월 일본 4개 도시투어를 벌인 블락비는 현재 일본의 대형 기획사와 계약도 앞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와 페루, 칠레 등 남미에서도 인기를 얻으며 내년엔 월드투어도 계획하고 있다.



1년의 활동 중단이 그룹 블락비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블락비가 과거의 논란을 딛고 신곡 ‘베리 굿’으로 높은 인기를 끌며 오목이처럼 우뚝 일어섰다. 뉴스

하지만 이들에게 지난 1년은 매우 우울한 시기였다. 이들은 작년 2월 태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막말을 해 비난을 받았다. 당시 홍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현지인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으로 치유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진 건 돈 밖에 없다. 7000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국내 방송에서 격의 없이 말한 발언들로 구설에 올랐다. 올해 1월에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으면서 활동을 하지 못해 팀

존폐 위기에 처했다.

블락비는 결국 반성과 자중, 노력의 절치부심 끝에 ‘베리 굿’으로 돌아와 반전의 성과를 얻고 있다. 이들은 최근 컴백 쇼케이스에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 누구보다 더 든든히 우리의 팬이 되어준 팬들에게 감사하던 음악을 들려주겠다”면서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만큼 이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들도 바로 팬들이었다. 블락비는 한때의 실수를 돌아보며 “조심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팬들은 랩 위주의 음악과 무대에서 자유스럽게 ‘노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들의 퍼포먼스에 다시 한 번 환호하며 화답하고 있다.

블락비의 소속사 세븐시즈슨 관계자는 “1년간 활동을 중단하면서 팬들이 떠나가지 않을까 걱정할 것도 사실”이라며 “멤버들이 깨닫고 배운 것이 많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김원경 기자 gymmy@donga.com 트위터@ziodadi

드라마 속 직업 ‘방송인 전성시대’

작가·연출자·아나운서·VJ 등 각양각색 인기 직종 현실 반영...식상하다 비판도



‘아나운서, 작가, PD, VJ까지...’

인방극장에 방송가 사람들이 넘쳐난다. 현재 방송 중인 드라마들 속에서 방송계 종사자들이 주요 캐릭터로 활약하며 시선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식상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14일 첫 방송한 KBS 2TV 월화드라마 ‘미래의 선택’(사진)에는 다양한 직군의 방송국 사람들이 등장한다. 여주인공 윤은혜는 콜센터 계약직 직원에서 우여곡절 끝에 방송사 작가가 됐고, 이동건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송사의 대표 아나운서 역할을 연기 중이다. 정용화는 정체를 숨긴 비디오텐리스(VJ)를, 한채아는 꼭 부러지는 실력을 갖춘 리포터로 방송국 내 다양한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다.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공주’에서는 배우와 매니저, 작가가 극의 중심을 이끌어 가고 있다. 여주인공 전소민의 직업이 배우이고, 극중 그와 결혼한 오창석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드라마 작가다. 두 사람과 삼각관계를 형성한 서하준은 매니저. 이 밖에도 드라마 연출자 등과 기자, 스타일리스트 등 다양한 직군이 등장한다.

KBS 2TV 일일드라마 ‘지성이면 감천’ 역시 방송국이 배경이다. 여주인공 박세영과 이

해인은 방송국 아나운서, 남자주인공 유건과 박재정은 교양국 PD와 PD 역을 소화하고 있다. SBS 주말드라마 ‘결혼의 여신’에서는 이태란과 장현성의 역할이 전직 아나운서와 앵커로 설정돼 있을 정도로 특히 아나운서는 드라마 캐릭터의 단골 소재가 되고 있다.

최근 지상파 아나운서의 입사 경쟁률이 1000대 1에 달하고, PD와 기자, 방송작가 등이 인기직종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청자의 관심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는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드라마 캐릭터가 그만큼 다양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아쉬움도 제기한다. 한 지상파 드라마국 고위 관계자는 “드라마 작가들이 방송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더 현실감 있고 디테일한 캐릭터 묘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특정 직군을 미화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캐릭터가 획일화해 진부해지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ricky337



연기자 온주완·김선아·마동석(왼쪽부터)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CGV에서 열린 영화 ‘더 파이브’ 제작보고회에서 손가락을 펼쳐 영화 제목을 표현하며 웃고 있다.

서현진 “사극만 여섯편째 하옵니다”

2006년 ‘황진이’ 시작으로 사극 단골 다양한 역할로 이미지 고착 우려 씻어



연기자 서현진(사진)이 사극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서현진은 현재 MBC 월화드라마 ‘불의 여신 정이’와 일일드라마 ‘제왕의 딸, 수백향’에서 열연 중이다. 최근에는 단막극 ‘드라마 페스티벌-불온’에도 출연하며 7월부터 석 달 동안 잇따라 사극에만 출연하고 있다.

이쯤 되면 사극 단골손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현진은 2001년 걸그룹 밀크로 데뷔한 뒤 2006년 KBS 2TV ‘황진이’를 통해 연기자로 전향했다. 이후 2011년 MBC 사극 ‘좌파’로 주목받은 그는 MBC ‘신들의 만찬’ ‘오자룡이 간다’ 등 모두 9편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이 가운데 5편이 사극이다. 한 편의 시대극(MBC ‘절정’)을 포함하면 모두 6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서현진은 ‘사극전문’ 연기자의 이미지로 굳어지지 않겠느냐는 부담

감도 없지 않다. 대신 서현진은 작품 사이사이 긴 공백을 두지 않고 시청자의 눈에 익숙하게 다가가는 방식과 다양한 캐릭터의 변화로 이를 뛰어넘었다. 서현진은 돈과 권력에 사로잡힌 악역,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여장부 스타일의 공주 그리고 첩자, 노비 등 다양한 캐릭터로 6편의 사극에서 각기 다른 매력을 선보였다.

‘제왕의 딸, 수백향’ 한 관계자는 “사극은 현대극보다 시간과 체력적 소비가 많아 여자 연기자들이 대체로 꺼리는 편이지만 서현진은 다르다”면서 “전통의상이 잘 어울리는 얼굴도 한 몫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술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편집 | 박재운 기자 parkjy@donga.com 트위터@parkjyoon



“이다희 열애설 사실 무근”

‘소속사 대표와 교제 중’ 보도에 소속사 공식 부인

연기자 이다희(사진)가 자신이 소속된 매니지먼트사의 대표와 열애설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15일 오후 한 매체는 이다희가 소속사인 매니지먼트 구의 구분권 대표와 열애 중이라는 보도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이다희는 2년 동안 구 대표와 교제를 해왔다. 특히 그는 오랜 무명 기간을 딛고 연기자로 주목받는 데 구 대표의 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 대표는 이날 오후 언론과 나눈 전화통화를 통해 “서로 신뢰하는 소속사 대표와 연기자 관계이다”면서 “갑작스런 열애설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다희의 측근들 역시 “두 사람이 교제 중이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서 “전혀 몰랐던 일이다”고 밝혔다.

이날 갑작스런 열애설과 관련해 이다희의 과거 발언이 다시 화제에 올랐다. KBS 2TV 드라마 ‘비밀’에 출연 중인 이다희는 지난달 제작발표회에서 “공개 연애를 하고 싶다”며 “배우 생활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막더라도 공개하고 싶다”고 밝혀 눈길을 끈 바 있다.

이다희는 8월 종영한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2002년 슈퍼모델로 데뷔해 드라마 ‘로열패밀리’ ‘태왕사신기’ ‘에어시티’ 등과 영화 ‘하모니’ 등에 출연했다.

백술미 기자



연예뉴스 스테이션

JYJ 김재중 솔로 앨범 수록곡 ‘햇살 좋은 날’ 좋은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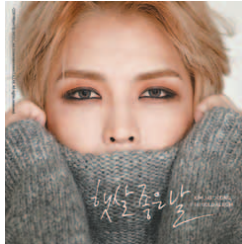


그림 JYJ의 김재중이 첫 솔로 정규앨범 ‘WWW’ 발표를 앞두고 선공개한 수록곡 ‘햇살 좋은 날’(사진)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5일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와 아이튠즈를 통해 선보인 ‘햇살 좋은 날’은 벅스, 싸이월드뮤직 실시간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올레뮤직, 엠넷 등 음원사이트에서도 상위권에 올랐다. 이 곡은 백무현 작곡가의 작품으로 한 남자의 그리움을 솔직한 가사로 표현한 노래. 김재중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보컬그룹 노을 이상곤의 하모니가 돋보이며 서정적인 피아노와 따뜻한 선율의 어쿠스틱 기타가 어우러져 풍부한 감성을 전한다. 김재중은 29일 ‘WWW’를 내고 11월2일·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3 김재중 퍼스트 앨범 아시아 투어 콘서트’를 펼친다.

MBC ‘아빠! 어디가?’ 중국판 프로그램 인기 폭발



MBC 예능프로그램 ‘아빠! 어디가?’의 중국판(사진)이 현지에서 높은 인기를 자랑했다. MB

C에 따르면 11일 중국 후난TV를 통해 첫 방송한 중국판 ‘아빠! 어디가?’는 현지 시청률 조사기관 CSM29의 집계 결과 1.46%의 시청률로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 총 12회 방송하는 중국판 ‘아빠! 어디가?’는 한국 프로그램이 아빠와 자녀의 관계 회복에 정서를 맞춘 것과 달리 자녀 교육 문제에 초점을 뒀던 현지화하면서 차별화를 꾀했다. MBC 관계자는 “재미 외에 연예인들의 자녀 교육 방식을 공유하며 스스로 돌이켜보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교육적 가치까지 얻어 시청자의 호응이 이어졌다”고 인기 요인을 꼽았다.

트로트 여가수 ‘소속사 사장이 성폭행’ 경찰에 고소

한 트로트 여가수가 소속사 사장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여가수 A는 최근 충북 청주에서 행사 공연을 마친 뒤 소속사 사장으로부턴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A는 고소장에서 “공연 이후 소속사 사장과 술을 접한 식사를 하다 사장이 건넨 술을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전북 집으로 귀가했지만 잠에서 깨어난 뒤 속옷이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 성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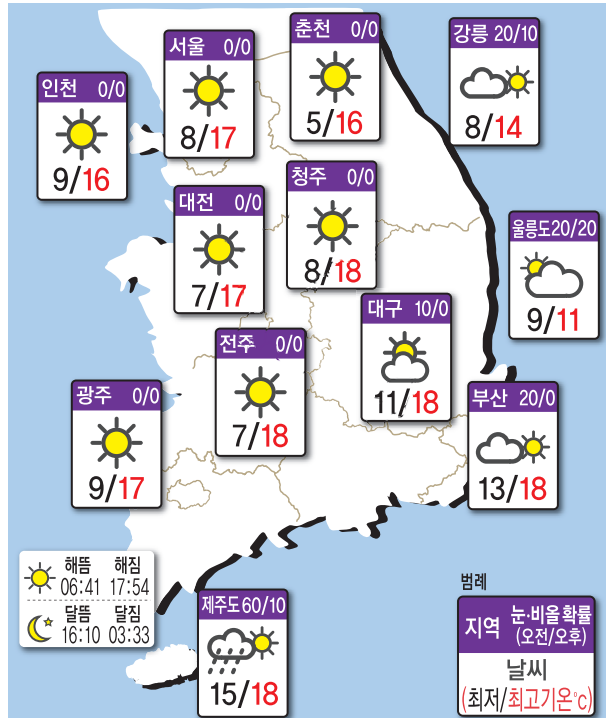
연기자 유통 33세 연하 몽골인 아내와 내년 5월 결혼

연기자 유통이 33세 연하의 몽골인 아내와 내년 5월 결혼식을 올린다. 유통은 15일 방송된 케이블채널 Y-STAR ‘생방송 스타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유통은 올해 8월에 이어 11월 결혼식을 올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몽골인 아내와 갈등설에 휘말려왔다. 유통은 이후 아내에게 사과했고 “내년 5월 제주도집 정원에서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편집 | 박재운 기자 parkjy@donga.com 트위터@parkjyoon

오늘의 날씨

10월 16일 수요일 (음력 9월 12일)



주간 날씨 (내일 10월 17일)
17일(목) 7/18 ~ 4/17 ~ 6/18 ~ 7/19 ~ 9/18 ~ 12/19 ~
18일(금) 8/20 ~ 5/19 ~ 7/21 ~ 9/20 ~ 11/21 ~ 15/21 ~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발행인 송대근	대표전화 02 2020 0114	구독신청 1588 2020
인쇄인 최병호	편집부 02 2020 1039	FAX 02 2020 1015
편집인 이성준	스포츠1부 02 2020 1052	www.sportsdonga.com
편집국장 양성동	스포츠2부 02 2020 1051	(주)110-7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계천로 1
광고국장 이윤옥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레저경영부 02 2020 1062	2008년 3월 24일 창간
	사건부 02 2020 1068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시정국 02 2020 1038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